"코미디는 내 연기의 원천"

'힘을 내요, 미스터 리' 차승원

12년 만에 코믹영화 주인공 좋아하는 장르라 부담 없어 곱슬머리 동네 아저씨 역할

배우 차승원(49)이 12년 만에 코미 디 영화로 관객을 찾는다.

오는 추석 개봉하는 영화 '힘을 내요, 미스터 리'는 아이 같은 아빠 철수와 어 른 같은 딸 샛별 이야기를 그린 코미디 영화다. '럭키' (2016)로 약 700만 관객 을 동원한 이계벽 감독 신작이다.

'신라의 달밤' (2001), '라이터를 켜 라'(2002), '광복절 특사'(2002), '선 생 김봉두' (2003), '귀신이 산다' (2004), '이장과 군수' (2007) 등 2000 년대 초중반 작품에 다수 출연하며 한국 코미디 영화 전성기를 이끈 차승원은 이 번 영화로 12년 만에 같은 장르에 출연 하게 됐다.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영화관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차승원은 "코미디 연기를 한동안 하지 않았는데, 따뜻한 휴먼 코미디에 출연하게 됐다"며 "제가 좋아했던 장르라서 그런지 부담이 없 다"고 말했다.

"코미디는 연기할 때 다른 영화보다 상상력이나 창의력이 더 많이 요구·강 조되는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에 제 가 코미디 영화를 워낙 많이 찍어서 이 장르가 싫을 때도 있었지만, 코미디 장 르는 저에게는 땅 같은 존재죠. 관객들 도 다른 장르보다 제가 코미디에 나오는 것을 좋아해 주시고요."

아이 같고 순수한 철수를 표현하기 위 해 영화 속에서 차승원은 기존의 멋진 모습을 포기하고 곱슬머리 동네 아저씨 가 됐다.

"가린다고 해서 (제 미모가) 가려지





나요? (웃음) 철수의 지금 모습은 감독 님이 제안하셨어요. 매번 얇은 롤로 머 리를 말아서 곱슬머리를 표현했죠."

이계벽 감독도 "철수가 평범하게 보 여야 하는데 (차승원이) 어떤 옷을 입 어도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며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옷과 안 좋은 머리 모양을 선택했다"며 "그래도 멋있었다. 그런 부 분이 힘들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동안 악역을 주로 맡은 배우 박해준 은 이 영화를 통해 처음으로 코미디 연 기에 도전했다. 그는 이번에는 자나 깨 나 아이 같은 형 철수를 걱정하는 동생 영수를 연기했다.

박해준은 코미디 연기 첫 도전 소감에 대해 "제 자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역 할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코미디 영화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조금 철 없고 어눌한 모습인, 제 평소 모습을 보 여주려고 노력했다"고 웃었다.

이밖에도 전혜빈, 김혜옥, 엄채영 등 이 출연한다. /연합뉴스





왼쪽부터 백종원, 박재범, 양세형, 백진희

백종원, 추석맞이 휴게소 메뉴 개발

SBS TV 추석 연휴 특집 예능 '맛남의 광장'

외식업계 대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가 다가오는 추석에 휴게소, 철도역, 공항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신메뉴 개발 에 나선다.

SBS TV는 추석 연휴 특집 예능 '맛남 의 광장'(가제)을 방송한다고 7일 예고했

프로그램에는 백 대표뿐 아니라 백진 희, 양세형, 박재범이 참여하고 '3대천왕', '푸드트럭', '골목식당'으로 백 대표와 오

랜 시간 호흡을 맞춰온 이관원 PD가 연출 을 맡았다.

백 대표는 지역 특산품으로 기존에 없었 던 메뉴를 개발해 휴게소, 철도역, 공항 등 유동인구가 많은 만남의 장소에서 행인들 에게 선보인다.

제작진은 "침체한 농가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를 할 것" 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오연서-안재현 '하자있는 인간들' 로코 호흡

MBC 수목드라마 11월 방송 지독한 외모 편견 극복하기

배우 오연서와 안재현이 오는 11월 방송 할 MBC TV 새 수목드라마 '하자있는 인 간들'로 만난다고 양측 소속사가 7일 밝혔

'하자있는 인간들'은 꽃미남 혐오증이 있는 여자와 외모 집착증에 걸린 남자가 서로의 지독한 외모 편견을 극복하는 이야 기를 담은 로맨스극이다.

오연서는 당찬 성격을 가진 열혈 체육 교사 주서연을, 안재현은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이강우를 연기한다.



배우 오연서(왼쪽)와 안재현

연출은 2017년 SBS TV '엽기적인 그 녀'로 오연서와 호흡을 맞춘 오진석 PD가 맡는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모두 다 쿵따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신입사관 구해령(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2019 청소년 공감 콘서트 온드림스쿨	00 저스티스(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10 태양의 계절(재)	00 12 MBC 뉴스 20 장애인식개선 프로젝트 우리동네 피터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톡톡 보험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꼬마어사 쿵도령 2		20 꾸러기 식사교실(재)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20 시노스톤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0 뉴스브리핑
3	00 TV쇼 진품명품 스페셜(재)	05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뿌까 50 정율성 동요 대회 스페셜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00 네모세모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콩순이의 율동교실 15 핑크퐁 원더스타 30 주간연예수첩	00 5 MBC 뉴스 25 황금정원(재)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정글의 법칙(재)
7	00 KBS 뉴스7 30 특선다큐멘터리 야생의 대평원 세렝게티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꼼지락
8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스페셜	55 신입사관 구해령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10	00 KBS 스페셜 55 오늘밤 김제동	00 저스티스	05 섹션 TV 연예통신 1~2부	00 닥터탐정
11	35 UHD 숨터 4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10 해피투게더 1~2부	05 광복절 특선영화 박열	10 접속! 무비월드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20 나이트라인 50 테마스페셜

05:00 왕초보영어

05:30 통일의 길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07:15 띠띠뽀띠띠뽀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07:45 페파 피그

08:00 딩동댕 유치원1~2 08:30 피피루 안전특공대

08:45 라떼키즈 09:00 마샤와 곰

09:30 몰랑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30 한국기행(재)

EBS1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

13:00 지식채널e

13:10 최고의 요리비결 13:40 다큐 시선

14:30 띠띠뽀 띠띠뽀(재)

14:45 용감한 소방차 레이(재)

15:00 탑윙 구조대 15:30 뽀로로와 노래해요(재)

15:45 꼬마히어로 슈퍼잭(재)

16:00 예술아 놀자

16:15 피피루 안전특공대(재) 16:30 딩동댕 유치원1~2(재)

21:30 한국기행 〈여름 한 사발, 냉국기행 4부〉

17:00 EBS 뉴스

17:20 다큐동화 달팽이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5

17:30 페파 피그(재)

19:00 레이디버그

19:30 생방송 판다다

20:40 세계테마기행

20:00 갤럭시 프로젝트

21:50 다큐 시선

〈로맨틱 지중해 4부

다이빙의 천국 쿠사다시〉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23:55 EBS 스페이스 공감

8월 8일 (음 7월 8일 丁丑)



36년생 여기저기에서 불편한 문제들이 속출하는 대목이 로다. 48년생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리라. 60년생 대동소 이하다고 할 수 있으니 어림잡아도 지장이 없다. 72년생 미동도 하지 말아야겠다. 84년생 지나치다면 오히려 부 작용이 생기리라. 행운의 숫자: 10,52



37년생 지금의 판도가 무방하겠다. 49년생 상호간에 연 쇄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느니라. 61년생 당장의 이득 은 없어도 가까운 시기에 길경으로 이어지겠다. 73년생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다. 85년생 당장 처리해 야만 할 시급한 일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50, 16



38년생 기회가 주어질 때 제대로 활용하자. 50년생 모두 가 개별적으로 중하니 일일이 확인하라. 62년생 형국이 마음에 들지 않으리라. 74년생 예상 했던 대로 별 탈 없 이 진행되리라. 86년생 다른 곳은 쳐다보지 말고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자. 행운의 숫자: 14,48



39년생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자신의 언행에서 기인 한다. 51년생 잘못한 줄 알면서도 고치지 않으면 그것이 더 큰 과실이다. 63년생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리라. 75 년생 가만히만 있으면 값어치가 높아질 것이다. 87년생 행운의 숫자 : 88, 17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라.



40년생 중요하다. 52년생 마지막 난관일수도 있으니 지 혜롭게 극복할 수 있어야겠다. 64년생 분명히 눈에 띠는 것이 있으리라. 76년생 미리서 준비해 놓지 않으면 당래 지사 앞에서 당황하게 된다. 88년생 응용의 묘리를 살린 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행운의 숫자: 80,90



41년생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상책이다. 53년생 마지막 고비이니 최선을 다하고 보아야겠다. 65년생 지름길로 가려다가 오히려 낭패를 볼 수다. 77년생 뜻밖의 협조가 있으나 효과는 미미하다. 89년생 판도는 자신만을 기다 려 주지 않느니라. 행운의 숫자: 61,35



午

42년생 장애 요소가 나타나겠지만 손을 쓰면 곧 수습되 리라. 54년생 다 잡은 고기를 놓칠 수도 있음을 알아야 것이다. 66년생 혼란스러울 것이다. 78년생 꿈에나 그려 왔던 이상적인 것을 우연히 마주칠 수다. 90년생 사실이 왜곡 되어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39, 30



未

申

酉

43년생 가벼운 언행이 시비로 비화될 수도 있으니 조심 하라. 55년생 공허하여 그 어떤 실속도 없다. 67년생 흔 들림 없는 마음으로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 79년생 관심과 배려가 뒤따른다면 효과가 커진다. 91년생 기대 에 부응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74,94



44년생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써야만 한다. 56년생 지금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해서 주력하는 것이 지당하다. 68년생 숨은 뜻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80년생 표면 일 뿐이므로 동요될 필요는 없다. 92년생 창의성과 개성 의 발현이 절실히 요구 된다. 행운의 숫자 : 96, 78



45년생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일제히 나서는 양태이다. 57년생 섞이어 있으니 잘 살펴봐야겠다. 69년생 희망찬 영역의 활로를 개척하게 될 것이다. 81년생 눈여겨 볼 필 요가 있다. 93년생 일관된 면모와 지속적인 실행이 순조 로움을 불러 올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2, 13



34년생 길흉이 교차하니 맹점이 없는지 살펴보자. 46년 생 촌시가 황금과 같으니 시간을 아껴 쓰자. 58년생 잘 간수하지 못한다면 잃고 나서 후회하리라. 70년생 구분 지어 놓지 않으면 혼란을 가중 시킬 것이다. 82년생 흔들 리지 말고 태연자약 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06, 19



35년생 조심하지 않으면 낭패를 본다. 47년생 흉과 복이 반반이니 의연히 대처하라. 59년생 놓치면 후회하게 될 소중한 찬스가 생길 것이다. 71년생 준비물을 빠짐없이 챙겨야겠다. 83년생 속도를 늦추고 뒤돌아 볼 수 있는 여 유가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31,1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